

구례 산수유꽃축제 부스 입점료 폭리에 상인 '울상'

인근 타 지자체 比 최대 10배 ↑ 징수 축제추진위, 고압적인 태도 일관 '논충' 郡 "고가의 텐트 설치 감안해 비용 설정"

구례군의 대표 행사인 산수유꽃축제가 인근 지자체보다 현저히 높은 부스 입점료를 징수하면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주최 측인 축제추진위원회가 상인들의 행정 지원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

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29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구례 산수유문화관 일대에서 '제27회 구례 산수유꽃축제'를 개최했다. 축제 기간 식당 부스에 입점한 주민들은 부스 1동당 200만원의 입점료를 지불했지만, 축제 기간 내내 관광객 유입이 기대에 못 미치자, 상인들은 몽골 텐트 외부에 식당 안내·메뉴판 현수막을 설치해달라고 추진위에 건의했다. 하지만 건의를 접수한 추진위원장 A씨는 해

당 식당을 찾아와 "식당 하면서 돈 벌고 있지 않느냐. 무슨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냐"며 "현수막을 달 돈이 없다"고 발언한 뒤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점 상인 B씨는 "고액의 입점료를 내고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상인들이 지불한 부스 입점료는 1일 기준 약 22만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훨씬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지자체인 곡성군(10일)과 순천시(9일)

는 1일 기준 약 10만원, 광양시(10일)는 2만원의 부스 입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동일한 산수유 축제를 여는 경북 의성군(1일 약 3만원)과 비교하면 약 7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올해 구례군은 축제 예산으로 군비 5억2천500만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의성군(2억5천만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지역 상인 지원보다는 외부 용역이나 이벤트 성 행사에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구례=김세종 기자

지역 상인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본보는 추진위원장 A씨에게 구체적인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와관련 구례군은 고액 입점료에 대해 "100% 군비 사업이라 예산 한계가 있고, 쾌적한 식사 환경을 위해 고가의 돔 텐트를 설치하는 것을 감안해 비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 입점의 경우 운영 시 산정만 하고 당일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입점료를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구례=김세종 기자

곡성군, 구직 단념 청년 '자립 지원' 본격화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사업' 추진 상담·진로탐색·취업역량 강화 등 취업 인센티브 최대 350만 지급

곡성군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자립 지원을 본격화한다. 29일 곡성군에 따르면 사단법인 미래기술산업진흥원과 함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참여자 모집에 돌입했다.

거점 공간인 곡성을 '비밀언덕25'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취업 교육을 넘어 청년들의 정서적 회복과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1대1 밀착 상담을 비롯해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다채로운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이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지원 과정은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5주 이상), 중기(15주 이상), 장기(25주 이상)로 나뉘며 수당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단기 과정 이수 시 50만원을, 장기 과정의 경우 참여 수당과 취업 인센티브 등을 모두 합쳐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

담을 털어준다. 신청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이나 직업 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34세 구직 단념 청년이다. 자립 준비 청년이나 북한 이탈 청년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군은 지역 특화 제도를 통해 일부 대상의 경우 만 49세까지 참여폭을 대폭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든든한 지지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 청년들이 다시 일어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값진 밑거름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GS칼텍스는 최근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여수교육지원청 맞춤형 학습교실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총 5천만원의 기금을 기탁했다. (GS칼텍스 제공)

GS칼텍스 노사, 21년째 여수 청소년 '든든한 동반자'

학습교실 지원금 5천만원 전달 누적 15억...올해 무선중 추가

GS칼텍스 노사가 21년째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의 든든한 교육 후원자를 자처하며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29일 GS칼텍스에 따르면 최근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여수교육지원청 맞춤형 학습교실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총 5천만원의 기금을 기탁했다. 이번 기금은 노조원과 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조성했으며, 지난 2006년

부터 21년간 이어온 누적 후원금은 15억5천만원에 달한다. 행사에는 김진우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 윤양석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장대익 GS칼텍스 노조위원장, 김기용 GS칼텍스 SHE/대외협력실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표적인 노사 공동 사회공헌 활동인 '맞춤형 학습교실'은 방학이나 주말 동안 방학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과 학습 지도, 문화 체험, 진로 탐색, 식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여수 무선중학교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돼 여수중, 여수구봉중, 여수삼일중, 여남중·고 등 총 5개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김기용 GS칼텍스 SHE/대외협력실장은 "긴 시간 동안 뜻깊은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노조의 꾸준한 관심과 지역사회의 협력 덕분이다"며 "지역 미래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S칼텍스 노사는 여수YMCA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취업준비생 식비 지원, 지역 아동센터 희망에너지교실 등 다채로운 상생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보성군, 자살 예방 '생명안전망' 구축

한국아쿠르트 순천연합점 MOU 프레시매니저 2명 마을지기 활동

보성군이 지역 주민과 매일 가깝게 접촉하는 프레시매니저를 활용해 자살 예방 생명안전망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29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한국아쿠르트 순천연합점과 업무 협약(MOU)을 맺고 생활밀착형 자살예방사업인 '생명이어 온(溫)라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상적인 대면 활동이 잦은 생활터 기반 인적 자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군을 전문 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성 지역을 담당하는 프레시매니저 2명은 사전 사업설명회와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한 뒤 '하트링크 마을지기'로 투입되며, 이들은 제품 배달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울감이나 사회적 고립 등 정서적 위기 징후를 세심하게 살핀다. 또한 구독자에게 자가 검진용 검사지를 배부해 스스로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결과에 따라 센터의 맞춤형 심리 상담과 사례 관리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현장에서 주민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프레시매니저



와의 협력이 위기 기구를 조기에 찾아내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탄탄한 생명안전망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장흥군, 회진면 진목마을 폐기물 시설 정비

농식품부 공모 선정...83억원 확보 주민 쉼터·산책로 조성·환경 개선

장흥군이 농촌 마을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유해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복원하기 위한 대규모 개선 사업에 나선다. <사진> 29일 장흥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돼 사업비 83억8천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농촌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시설을 이전·정비해 주민들의 삶터와 쉼터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회진면 진목마을은 마

을 중심부에 위치한 가축 분뇨 등 폐기물 처리업체 2곳에서 뿜어내는 고농도 악취로 오랜 기간 주민 피해가 극심했으며,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귀농·귀촌 기피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의 큰 걸림돌이 돼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오는 2030년까지 5개년 동안 해당 시설을 정비하고, 확보된 부지에 주민공유 쉼터와 산책로 등을 새롭게 조성한다. 아울러 낡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해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훼손된 농촌 다음을 회복하고 군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다지고, 앞으로도 농촌 공간 재생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흥록 기자

"소 한마리 2천500만원"...담양군, 종축개량 결실

체계적 사양·혈통 관리 성과 담양군의 한우 종축개량 사업을 통한 암소가 높은 판매가를 기록하며 눈부신 결실을 맺었다.

29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읍에 위치한 황금누리농장의 김동관씨가 사육한 우량암소 두마리가 최근 각각 2천500만 원에 판매되며 전국 최상위 수준의 품질을 증명했다. 이번엔 판매된 암소는 우수한 유전 형질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양 관리와 철저한 혈통 관리를 거쳐 길러진 우량 개체다. 이 같은 쾌거는 담양군이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우량암소 지원 및 종축개량 사

업'의 결과로, 농가 역시 군의 개량 정책에 발맞춰 빈틈없는 사육 관리에 힘써 값진 성과를 얻게 됐다. 군은 앞으로도 '상위 1% 우량암소' 확보를 목표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담양 한우를 전국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광현 축산원예과장은 "사료비 상승 등 열악한 축산 환경 속에서 거둔 이번 성과가 지역 한우 농가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맞춤형 정책 발굴과 지원을 통해 담양 한우의 경쟁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화순군, 내달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8→9세 미만...2천200명 매달 11만원

화순군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 연령과 금액을 확대한다.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특히 군은 인구감소 지역 우대 혜택이 적용돼 지급액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급 연령은 올해 시행된 법 개정에 맞춰 매년 1세씩 늘려 오는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제도 확대로 화순군의 아동수당 대상자는

기존 1천750명에서 2천2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연령 초과로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군 직권으로 대상에 다시 포함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수당은 4월 정기 지급 시 일괄 소급 지급된다. 다만 신규 대상자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가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확대 시행되는 아동수당을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